

사회

다문화 여성 영어강사 줄속 운영

광주 서구청, 초등학교 등서 월 28만원 받고 일하다 5개월 지나면 실직

구청 지원 끊겨 1년 뒤 다시 교육 '악순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취업과 빠른 사회 정착을 위해 광주시 서구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다문화 여성 영어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어강사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문화 가정 여성 중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데다 영어강사가 되더라도 구비가 지원되는 5개월 기간 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더욱이 월 보수가 28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단체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구청측이 영어강사 과정 이수자들을 전제적으로 관리, 최소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취업하도록 돕거나 월 보수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영어강사가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 학습자를 찾아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7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 여성 19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12주 과정으로 구가 마련한 '다문화 여성 영어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기법과 대화책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교육을 받은 뒤, 초등학교

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1주일에 2시간씩 월 8시간, 5개월 총 40시간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총 40시간의 영어강사 활동이 마무리되는 5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문화 여성들(2009년 14명, 2010년 1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취업했으며, 나머지는 이에 취업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애초 취업했다 이들도 5개월 뒤 구청 지원이 끊기는 프로그램 성격상 직장을 잃었으며, 다음해 똑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 취업했다.

이는 구가 교육을 마친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 감사활동을 하게 되는 총 40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뿐 이후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분석된다.

"다문화 여성 영어강사 양성과정" 이수 다문화 여성들은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뒤, 구청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만5000원씩 5개월 동안 총 14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다문화 여성들은 3개월이나 교육을 받고도 1년에 5개월 밖에 일하지 못해 프로그램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예산상의 한계와 강사로 활동하는 혜택을 고루 분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이 끝난 다문화 여성들이 이후에도 정식 영어강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업무서 배제

대법, 사법연수원 발령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부적절 업무 논란'에 휩싸인 광주지법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대법원은 7일 선 부장판사를 오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하고, 사법 연수원 근무(연구직)를 명했다. 선 부장판사의 후임으로는 광주고법 운영원(47)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대법원의 이날 인사는 '부적절 업무' 의혹을 받고 있는 선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향후 법원행정처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및 부적절 업무 처리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 작업을 벌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기업의 감사에 친형이나 동창생인 변호사 등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창생인 모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돼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광주지검은 최근 선 부장판사의 법정관리 업무 처리와 관련한 진정서 2건을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진정서에는 선 부장판사와 동창인 모 변호사 간 유착에 관한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를 한 뒤 진정서에 언급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파산·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법원 산하에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판사는 헌법 106조에 따라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결 업무 처리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 작업을 벌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무실서 카드도박 택시기사 3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청은 7일 사무실에 모여 카드 도박판을 벌인 이모(45)씨 등 영업용 택시기사 3명을 각각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일 밤 10시30분부터 같은 날 밤 10시50분까지 약 20분 동안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관돈 10만5000원을 걸고 카드를 이용해 속칭 '홀라'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택시회사 소속인 이들은 영업을 나가기 전 함께 모여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의 도박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적발된 사람 중 도박 전과자가 없을 경우 보통 관돈이 15만원 미만이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씨에게 도박 전과가 있어 이들을 전원 입건 조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하수구 모기 방역

7일 오후 광주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두암동 한 공원 정화조에서 모기 등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 측은 내달 말까지 지역내 정화조와 쓰레기 매립지, 하수구 등 모기 서식지에 각각 2회 이상 방역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천만원대 빈집 털이 10대 등 4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청은 7일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강모(19)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께 목포시 용당동 박모(여·63)씨의 집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목포지역 빈집 3곳에서 2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거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함께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李법무 “장자연 사건 재수사 검토”

SBS “자필편지 입수” ... 경찰 제보자 재조사

탤런트 故 장자연씨의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SBS가 장씨의 자필편지를 장씨 지인으로부터 입수했다며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경찰이 7일 방송사 측에 편지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편지 제보자와 장씨의 관계를 재조사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 10여명을 편지를 넘긴 지인 A씨가 1999년 2월부터 수감생활을 했던 교도소 5곳에 보냈으며 오후에는 A씨가 현재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찾아 조사했다.

6일 SBS가 공개한 편지 50여통(230쪽)에는 '장씨가 술집때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연예 기획사 및 제작사 관계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접대를 받은 31명의 이름'이 담겨있다. 또 '접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명단을 만들어 줘요 내가 죽은 뒤 복수를 해달라. 저승에서라도 꼭 복수를 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

석,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이번 사건이 굉장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방송사로부터 편지를 입수하면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여성연대 등 4개 정당·여성단체는 7일 장씨의 '성상납 강요' 자필 편지와 관련해 "성상납 리스트"를 공개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 등은 "2년 전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연습뉴스

후배 女수사관 성추행 광주지검 수사관 파면

광주지방검찰청은 7일 "후배 여자 수사관을 성추행한 수사관 A(43·6급)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지검에 첫 출근한 여성 후배 수사관 B씨를 회식자리와 노래방 등에서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사실

이 인정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B씨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해 A씨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번 검찰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위험천만 '콩나물 뉘싹배'

22명 정원에 34명 태워 ... 여수해경 선장 3명 입건

여수해경은 7일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뉘싹배를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정모(67), 황모(59), 문모(28)씨 등 여수지역 뉘싹배 선장 3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여수시 남면 금도 동쪽 2마일 해상에서 정원은 22명인 자신의 뉘싹 배에 뉘싹 34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다.

황씨도 비슷한 시각 같은 해역에서 정원이 11명인 뉘싹 배에 12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문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여수시 순죽도 해상에서 22명 정원의 뉘싹배에 28명을 태우고 항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32명 징계

지난해 각종 비리와 비위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3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감사 결과

를 토대로 징계를 요구한 3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면직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이 21명이고, 업무용 법인카드 및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1천153만원(80건)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연습뉴스

디도스 공격 피해 '하드' 손상 219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산 서비스거버넌스(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하드디스크 손상 사례가 7일 오후 1시까지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7 디도스 대란' 당시 하드디스크 손상 첫날 신고 접수된 396건보다 적은 것이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하드디스크 파손은 지난 6일 오전 시작됐다.

방통위는 "신고된 사례를 일일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는데다 파손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구도 불가능해 정확한 피해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습뉴스

음주단속 순찰차 들이받고 광란 질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던 중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심야시간대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4·중장비 기사)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을 발견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자신을 뒤쫓던 문모(42)경사의 순찰차와 부딪히고, 동구 용산동 한 도로에서 또 다시 윤모(45)경사가 몰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순찰차 2대와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고 질주해 북구 풍향동 한 꽃집 입간판에 부딪힌 뒤에야 차량을 정차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음주경력 10회인 그는 이날도 면허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일